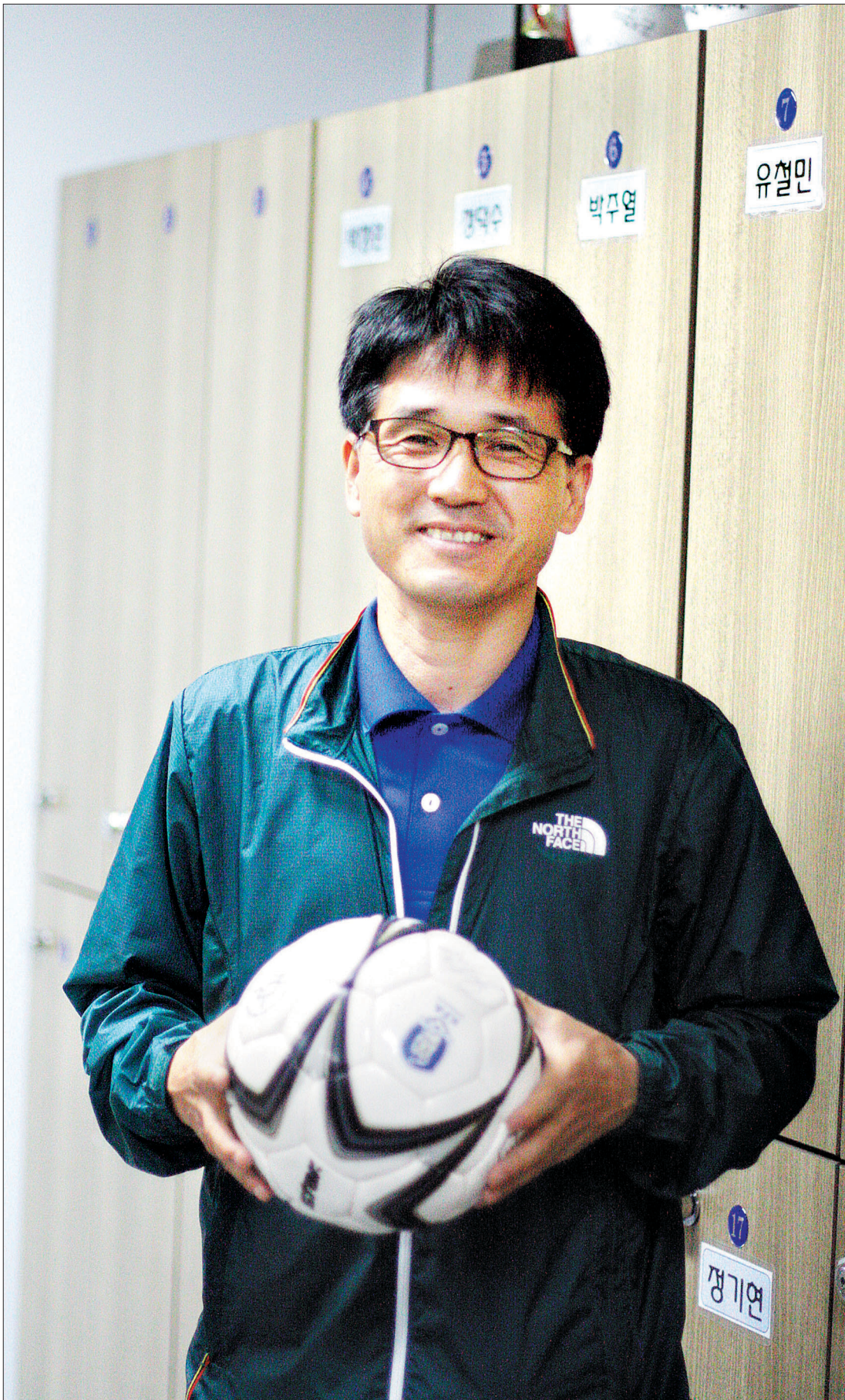


“장애우들은 나의 또다른 가족”...

한마음장애인후원센터 전진호 회장



전진호 회장은 ... 1966년 경남 밀양시 태어났다. 1986년 '하안비둘기' 장애인 봉사단체를 시작으로 불교봉사단체 부산불교보현회에서 청년회장을 지냈다. 1987년 천마재활원·성우원·평화의 집 등 재활원에서 체육 활동 및 결혼 돕기, 문화활동 지원 등을 이어갔고, 2006년 (사)한마음장애인후원회 설립에 기여했으며, 2012년 (사)한마음장애인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2년엔 사회적기업 (사)한마음 오피스를 창립,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으며, 2015년 4월에는 한마음직업재활원을 열고 장애인 자립에 힘쓰고 있다. 전 회장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부산교육청 교육감표창,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 2009년 부산광역시 표창, 2011년 부산 사상구 표창, 2013년 전국자원봉사자의 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014년 동부산대학교총장 표창도 수상했다. 또한 그가 이끄는 (사)한마음장애인후원센터는 2011년 대한민국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받기도 했다.

수많은 공장이 들어선 부산 사상구. 공장 지대를 지나 좁은 골목에 들어서면 새롭게 지은 30평 남짓의 2층 건물이 있다. 장애인들의 자립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에 새롭게 문을 연 한마음직업재활센터다. 안으로 들어서자 10여명의 장애우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밝은 얼굴의 장애우들은 운동화에 들어가 라벨을 작업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장애우들을 다정한 눈빛으로 이끌어주는 한마음장애인후원센터 전진호 회장(50)이 함께하고 있었다.

20대 청년, 장애우의 눈물을 보다

전 회장은 장애우들을 처음 만난 것은 1986년 그의 나이 21살 때였다. 손재주가 뛰어났던 그는 회사에서 수리를 도맡아 했던 기술자였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날 직장 동료의 봉사단체 '하안비둘기'를 소개해 주었고 장애우 시설로 봉사를 나가게 되었다. 하안비둘기를 통해 처음으로 들었던 곳은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성프란치스코 재활원과 고아원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동료가 함께 가보자고 해서 따라나섰어요. 당시 그곳에 들어섰을 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악취가 진동했고 건물은 낡고 추웠어요. 지금처럼 인원수 제한도 없어서 120명 많게는 150여명의 부모 없는 장애 아동들이 머물고 있었죠. 우선 주방시설부터 고쳐주고 부서진 창문, 바닥, 목욕탕 타일 시공도 해주었어요. 라디오와 전자기도 손을 보아주었죠. 그 다음에는 아이들 목욕도 시켜주고 놀아준 게 전부였어요.”

정말 많은 일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는 정작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싶었다고 한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돌아서려고하니 한 아이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울기 시작했다.

한 명이 울기 시작하니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울어대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보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주에 또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때부터 매주 시설을 찾았고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고스란히 재활원의 아이들을 위해 썼다. 생필품은 물론 특별한 날 선물도 사주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다.

“매주마다 찾아 갔어요. 씻기고 먹고 못할 일이 없었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 설 때는 손을 잡고 가지 말라는 아이들의 눈을 보면 다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주말 평일 가리지 찾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았죠. 추운 겨울 보일러가 고장 나면 새벽에도 찾아갈 정도였으니까요.”

그가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건 자신의 어릴적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2남 2녀 중 셋째인 그는 7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난하게 자랐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가난이 인간의 꿈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잘 알아요. 그 현실을 아니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고 몸이 아프다고 꿈을 접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장애인들은 일반인들 보다 수명이 길지 못해요. 짧은 삶이니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이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랬죠.”

이후 그는 불교계 천마재활원과 인연을 맺고 통볼

원에서 불교공부를 하면서 불교계 복지시설과 인연을 맺었고 부산불교보현회에서 청년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교계활동도 시작했다.

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다

그가 장애우들을 돌보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몸을 안 움직이면 근육이 부족해 걷기 힘들어지고 성격도 난폭해진다는 사실이었다. 운동의 중요성을 절감했지만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운동을 제안하기는 힘든 상태. 그때 그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축구였다.

“당시 부산 불교계 청년들이 축구하며 포교도 많이 했어요. 저도 축구를 좋아했고요. 축구는 공 하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으니 따로 돈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었어요. 또 장애우들이 운동을 통해 서로 친구가 되고 고민을 나누고 건강을 찾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1987년 천마재활원 축구부 창단을 시작으로 그는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 활동에 힘을 쏟았다. 장애인

1986년 20대 장애우들과 우연한 만남

이후 매주 재활원 아이들 위해 월급 사용

1987년 천마재활원 축구부 창단 계기로

체육 활동 지원 통해 꿈과 희망 심어줘

장애우 국가대표 양성... 자신감 회복 보람

2012년 사회적기업 '한마음 오피스' 창립

전셋집 담보로 한마음 직업재활원 설립

직업재활원 사회복지법인 추진이 큰 원

체육 활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장애우들을 응지에서 양지로 이끄는 특별한 의식과도 같았다. 축구를 시작한 장애우들은 고민도 줄어든다고 웃는 일이 늘면서 하루하루 행복을 찾아가는 듯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며 전 회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축구부를 늘려갔다. 천마 재활원 축구부는 물론 종로원, 성우원, 평화의 집 등 그가 봉사활동을 하는 복지 시설에 축구부 창단을 제안했다. 그리고 1990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첫 도전했고, 매년마다 한마음 체육대회도 지원했다. 그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다. 등반대회, 사이클, 볼링, 수영 등 운동 종목의 범위를 늘려가면서 장애우들을 지도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그의 노력은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 1995년 미국에서 열린 제9회 장애인특수올림픽 축구 은메달, 1999년에는 미국 스페셜 올림픽 수영 부문 금메달, 2005년 제25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금메달, 2011년 지적장애 유철민의 국가대표 확정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면서 주목받는다.

이런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우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턱 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후원자가 없기 때문에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다칠 때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천마 재활원에 있던 최용길이란 학생인데 수영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전국 체전과 지역 체전은 물론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기도 했지만 후원자가 없었습니다. 당시 재활원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후원자 없는 달리 지원할 방법이 없었죠.”

많은 장애우들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차비가 없어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회를 포기해야 했다.

“장애우들을 돌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꽃집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입 대부분을 투자했어요. 후원자도 모집했죠. 하지만 장애우들의 운동 후원금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또한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둬도 고정된 수익이 나오지 않는 현실에서 장애우들에게 막연히 계속 운동을 권할 수도 없었죠. 사실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해도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 당장 생계가 시급한 장애우들에게 운동을 계속 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는 이제 장애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운동을 통해 성격도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행복해지는 것을 봤지만 그들이 성장해 어른이 되어서도 운동을 계속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애우들도 가정을 가져야 하고 자립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는 운동으로는 명확한 미래를 제시할 수가 없었어요.”

장애우들의 일자리를 고민하다

운동이 장애우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해결할 수는 없었다. 장애우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그는 한마음 직업재활원 설립에 이르렀다.

“제가 운영하는 꽃집에 일자리를 만들어 장애우들을 고용도 해보고 사상구에 있는 공장에 일자리도 알아봐 주었지만 여의치가 않았어요. 요즘, 일반인들도 직장을 구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장애우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겠어요. 그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2012년, 예비사회적 기업 한마음오피스를 열었다. 인크, 토너, 복사용지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장애우들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 기업이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장애우 결혼식도 돕고 문화활동 지원비 등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음오피스는 한계가 있어요. 장애우들은 사상구 주변의 공장과 관공서 등으로 배달을 다니는 정도의 일만 할 수 있어요. 현실이 이러니 고용에도 한계가 있었죠.”

전진호 회장은 말을 흐렸다. 장애인들을 위한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일상에서 그가 만나는 장애우들의 현실은 너무나 열악했다. 이렇게 장애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던 그는 드디어 4월 한마음직업재활원을 열게 되었다.

자신의 전셋집을 담보로 1억 8000만원의 빚을 냈다. “한 달 이자만 계산해도 엄청난 액수죠. 직업재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출연한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설 이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찬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 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절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합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말소일 스티크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수정기공 및 기공재활사 자격과정 특강

(사람정비 매뉴얼 수정기공)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수정기공 재활사) 민간자격(2014-5765)을 등록하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약물이나 침 뜸 지압, 마사지 등으로 질병을 치료를 고집하는가?

수정기공은 1-3차원에 강압에 준하는 단계가 아닌 거의 힘을 주지 않는 4단계를 지나 과거 설화나 천기누설같이 사랑의 극치인 5단계 재활 단계로 영육간 불편했던 모든 장애인에게 건강과 희망과 행복을 재활시키는 꿈의 결정판입니다.

- ◆ 강의 일정 : 매월 첫주 일요일 시작, 1개월 4주 단기코스 (일정변경 가능)
- ◆ 강의 내용 : 기공을 이용한 사람정비 매뉴얼
- ◆ 접수 인원 : 선착순 8명 이내.
- ◆ 수강 대상자 : 의료인, 물리치료사, 건강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남녀.

1 강사 : 김문기 원장 (박사 / 한국 신지식인)
2 교재 : 환상의 통증치유 STT의 4단계와 5단계 기공법 전수
3 강의 장소 : 수원 성균관대학 전철역 앞
4 접수 및 상담 : 010-3463-7806
5 수강료 : 수정기공 수료 및 자격증 취득과정 전화 상담
6 참고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일자리 창출, 자립이 가장 중요



전진호 회장은 올 4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마음장애인재활센터를 설립했다. 왼쪽서 두번째



제14회 부산시 장애인 축구 친선대회. 사진 중앙 가운데 심판을 보고 있는 전진호 회장.



2009년 제8회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행사 기념사진. 가운데 붉은색 상의가 전진호 회장.



전진호 회장이 참여한 2006년 11월 16일 (사)한마음장애인후원회 출범식 장면.

활원의 수익은 장애우들의 월급을 주고 나면 딱 맞아요. 경제적 이익을 생각했다면 시작할 수도 없는 일일 겁니다. 단지 장애우들의 일자리를 구해주어야겠다는 하나의 목표만 생각했어요. 현재는 이자를 갚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향후 한마음장애인후원센터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되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앞으로 한마음직업재활원이 사회복지법인으로 거듭나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목표다. 그리고 그가 창단한 장애인축구단들이 마음껏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저희가 제대로 된 차량이 없어요. 물건 나르는 승합차 한 대가 전부인데 행사가 클 때는 최대 100명이 이동해야 하니 한번 움직일 때마다 차량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장애우들을 위해 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30여년 장애우들의 성장과 자립 결혼은 물론 신혼여행까지 도와준 그는 장애우들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이기도 하다. 특히 그는 장애우들이 사고치지 않게끔 도와주고 있다. 장애우들의 사고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의 개념과는 달랐다. 바로 장애우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

“사기꾼들이 장애우들을 보고 친구처럼 다가가서 사기를 쳐요. 판단 능력이 부족한 그들이 잘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생각 없이 믿고 그냥 그대로 따라 갑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겨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저를 찾아오죠. 일을 만들기 전에 와서 의논을 하든지 아님 며칠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오면 해결이 쉬울 텐데 정말 그럴 때는 너무 힘들죠”

경제적 사기를 당하는 장애우들의 사연은 참담했다.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예사입니다. 여러 번 그러면 안된다고 주의를 줘도 막상 그런 사람이 접근하면 판단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장애우들에게 결제금액이 청구 되거든요. 통화료만 청구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기 당하는 수준이 엄청난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은 집이 넘어 갈 뻔한 것도 다시 찾아줬어요. 저는 이걸 사고 친다고 말을 합니다.”

30여년 장애우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성장과 자립 결혼까지 도와준 그는 정작 결혼을 하지 않았다. 전셋집마저 담보를 잡아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을 설립했으니 그의 삶은 무주상보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런 삶을 선택했냐는 질문에 그는 웃을 뿐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20대 초에 재활원에서 처음 만난 아이들의

눈빛을 보며 그들을 보살피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아이들의 순박한 눈빛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을 뿐이에요. 정신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는데 누가 저한테 시집을 오겠어요.(웃음) 그저 지금의 삶에 만족합니다. 장애우들이 힘을 때마다 저를 찾는 것처럼 저도 당연히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가족을 돕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저는 그들을 가족이라 생각하며 도움 뿐이죠.”

그에게 장애우들을 돕는 것은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한마음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내민 자료집에는 강령이 적혀 있었다. ‘처음처럼, 끝까지, 배운 은혜 생각말자. 조심(初心)’

그는 자신이 처음 먹은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고 했다. 그의 보시행에는 바라는 마음이 없다. 모든 것을 그저 내려놓고 행하는 보살의 마음, 그 하나만 있는 듯했다. 그래서 그의 보살행은 더 빛나 보이는 듯 했다. 그는 그저 처음 자신과의 약속을 기억할 뿐이다. 처음 봉사활동을 나가서 보았던 아이들의 눈빛이 계속 가슴에 남았을 뿐이고 다시 찾아오겠다며 안아줬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30년 전 그때의 마음으로 장애우들의 가족으로 남고자 한다. (051)301-2204, 후원: 농협 121044-51-055063 하성미 기자

전법일기

이제는 문화가 대안이다

“원래 종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절에서 와서 뭔가 하는 게 생소했지만, 1박 2일 동안 나름대로 보람 있었습니다. 세상 살면서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에 맡기다시피 했고, 그러다 이렇게 병들었는데 마음을 다스려 세상의 주인이 되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관화라고 해서 솔직히 우습게 봤었는데 직접 작업해보고 나서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구경하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기계도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찍어냈다고 생각하니 세상 옛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명주사에서 실시된 군 장병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1군수지원사령부 병사의 참가 후기다. 명주사 템플스테이는 고관화박물관

좋은 기회는 곧 찾아왔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를 지정 후 이를 죽은 문화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생생문화재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문화재를 활용해 미래 사회의 가치를 창출해내고자 함이었다.

명주사에는 삽화가 들어있는 옛 책 7권이 문화재로 지정돼있는 상태였다. 이를 활용해 이동전통관화를 통해, 우리 전통 인쇄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자 했다. 이동전통관화교를 통해 군부대와 병원 등 전국 곳곳에서 요청이 오면 거리와 관계없이 찾아가다. 처음에는 왜 관화인가라며 의문을 표하던 참가자들도, 옛 선조들의 판화를 인쇄하며 재미를 느끼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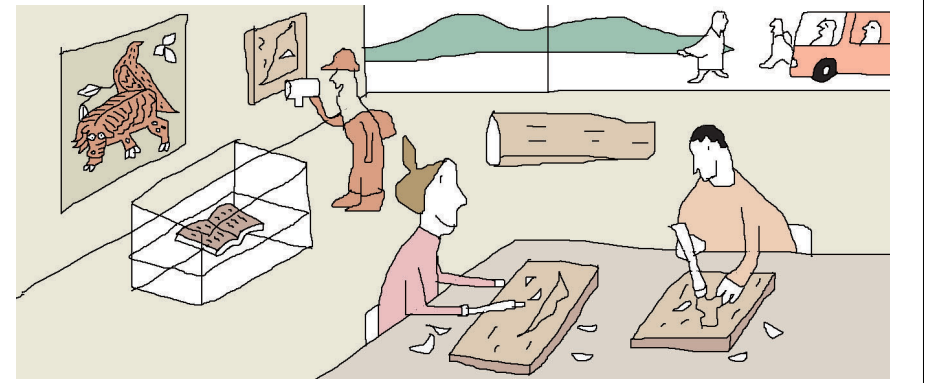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관과 명주사에서 문화와 자연과 명상이 어우러진 문화형 템플스테이로 이루어져 있다. 종교적인 색깔보다는 우리나라가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한국 인쇄문화의 우수성이 가득 담긴 고관화 박물관의 유물을 해설과 함께 관람한다. 나무 목판에 자신만의 문양을 새겨서, 하얀 면 T-셔츠에 찍어 수련복을 만들어 입고, 가족들이 협업하여 가훈 등 단체 관화도 만든다.

이런 고관화를 주제로 한 명주사 템플스테이를 생각하게 된 것은 군에 있을 때 부터였다. 필자는 1983년부터 1998년까지 15년 동안 군병사로 있었다. 이 때 군 장병들과 함께 종교 활동을 할 때 보다 더 많은 군 장병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다. 마침 종교라는 벽이 없는 고관화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장병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어떨까는 생각이 떠올랐다.

2003년 고관화박물관을 개관한 후 장기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했다. 단순한 박물관이 아닌 가족, 군 장병, 시민, 노인, 학생, 다문화, 새터민, 장애우 등 다양한 계층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말이다.

박물관 시설을 활용하는 ‘뮤지엄스테이’와 함께 명주사가 위치한 치악산의 환경을 활용한 ‘숲속관화학교’도 구성했다. 2011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되며 많은 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4년 연속으로 생생문화재사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명주사에서는 템플스테이가 하루, 1박 2일의 일정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찾아가는 이동관화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계기를 갖는 것이다. 종교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고관화라는 주제를 통해 불교를 알릴 수 있다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고관화를 통한 명주사의 문화 활동들이 다종교 사회의 새로운 표교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목판과 조각도를 들고 전국으로 달려간다.

한선학 고관화박물관 관장(명주사 주지)



마하연투어 예약문의: 02) 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1.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불교행사*
4.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5. 호텔/행사일정/식사 타사 비교 필수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 5일
양곤/바간/헤호 5일
BEST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티베트/부탄

티베트 6일
성도-라싸-암드록초-간체-시가체
BEST 티베트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네팔/부탄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9일
델리-라즈기르-나란다-보드기아-바라나시-아그라

BEST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기아-라즈기르-바이살라-나란다-쿠시나गर-룸비나-카필라바스투-쿠단-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블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일루비하라-캔디

BEST 스리랑카 완전일주 순례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집중모객

미얀마/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출발일: 5월 27일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출발일: 6월 17일
[대한민국 영산] 북경/백두산 5일 출발일: 6월 11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 6월 11일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유망의

라오스

BEST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 7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베트남/캄보디아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엠립 6일

태국

태국
방콕-아유타야-파타야 5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 3대사찰 순례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권

중국

BEST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황주 5일
BEST [관음도량] 항주/보타/낙가산 5일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BEST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BEST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웨이 크루즈(수륙대체 가능)
대릉웨이, 화동웨이, 위동웨이
세계3대 트레킹명소 호도협
곤명/호도협/옥룡설산 6일

세계 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미서부 일주탐방 9일
- 미동부 일주탐방 9일

